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2강 | 날개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배운 이상 작가의 ‘날개’ 지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험에 뭐가 나올지 감도 안 잡히고……. **옷의 묘사**가 특이했던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날개’는 워낙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지. 주요 부분들을 대화 형식으로 짚어줄 테니 잘 따라와 보렴. 먼저 네가 말한 옷차림 묘사, 아주 중요해. ‘나’에게는 아내가 옷을 주지 않았고, 검은 코르덴 양복한 벌과 검은 하이넥 스웨터만 있었다는 부분, 기억나?



네, 기억납니다. 검은 옷만 입었다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아내 옷은 화려하다고 했는데, 옷 색깔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시험에 옷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의 검은 옷은 아내의 화려한 옷과 대비되면서 ‘나’의 윤패된 삶, 아내에게 억압된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색깔의 대비를 통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는 방식은 문학 작품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법이고. 시험에서는 옷에 담긴 의미를 묻거나, 아내와의 대비를 통해 드러나는 효과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나’의 방 묘사도 인상적이었어요. 침침하고 해가 안 드는 방이라고 했는데, ‘아내의 방과 대조적인 ‘나’의 방’이 의미하는 바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까요?

‘나’의 방은 무기력한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공간이야. 해가 들지 않는 침침함,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이부자리 같은 묘사는 ‘나’의 무기력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대조적인 아내의 방과 비교하여 공간이 상징하는 의미를 묻는 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절름발이’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까요? 왠지 중요한 비유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2강 | 날개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나'의 윤패된 삶)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나'를 통제하는 아내)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잠잘 때 입는 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옷을 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이넥의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의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아내의 화려한 옷과 대비되는 '나'의 옷)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뒀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 밴드가 끼어 있는 부드러운 사투마다(허리에서 허벅지까지 덮는 일본의 남성용 속바지)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벌이 나갔는데(시간의 흐름)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아내의 방과 대조적인 '나'의 방. 무능력한 '나'의 내면을 상징. '아내'의 방과 대조적인 '나의 방'이 의미하는 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걷은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무기력한 '나'의 삶을 상징)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칫까칫하면서(살갓 따위가 조금씩 닿아 자꾸 쫄리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이불 속에서 여러 생각을 하는 '나', '나'가 지식인임을 드러내는 부분)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늑흐늑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형겅이나 메밀겅질로 멍멍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나'. 비유적 표현)이었을 뿐이고 뿐이고 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느니보다는 성가셨다.(아내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나'. '나'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 버리고도 싶었다.(게으르고 무기력한 '나')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서로 사귀는 정분이 두텁지 않아 조심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중략>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으로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어 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박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갑자기 어지러워 정신을 잃고 까무러칠 듯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핵심 정리

- 갈래: 단편 소설, 심리 소설
- 성격: 자기 고백적, 상징적
- 주제: 무력한 삶과 분열된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는 존재의 의지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시간적-1930년대, 공간적-서울(경성)
- 특징
 -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해 인물의 내면세계를 드러냄.
 - 상징적 소재로 주제 의식을 드러냄.
 -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인물 간 차이를 보여 줌.

전체 줄거리

지식 청년인 '나'는 놀거나 밤낮없이 잠을 자면서 아내에게 사육(飼育)된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현실 감각이 없다. 오직 한번 아내를 차지해 본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아내의 남편이었던 적이 없다.

아내가 외출하고 난 뒤에 아내의 방에 가서 화장품 냄새를 맡거나 돋보기로 화장지를 태우면서 아내에 대한 욕구를 대신한다. 아내는 자신의 매음(賣淫) 행위에 거추장스러운 '나'를 별 안 드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먹인다. 그 약이 감기약 아스피린인 줄 알고 지내던 '나'는 어느 날 그것이 수면제 '아달린'이라는 것을 알고 산으로 올라가 아내를 연구한다.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를 수면제 - 그것을 한꺼번에 여섯 알이나 먹고 자고 깨어나서, 아내에 대한 의혹을 미안해한다. '나'는 아내에게 사죄하러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그만 아내의 매음(賣淫) 현장을 목격하고 만다.

도망쳐 나온 '나'는 거리를 쏘다니던 끝에 미쓰고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 스물여섯 해의 과거를 회상한다. 이때 정오(正午)의 사이렌이 울고, '나'는 “날개야 다시 돌아라. ……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라고 외치고 싶어진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아내'에게 의지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의 상념과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생활의 문제를 인물의 내면에 투영하여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듯 서술함으로써 기존의 소설과 다른 서술 방식을 적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2026
특강
문학

2026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2강 | 날개 기출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건만 나에게서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옷을 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이넥의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의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 밴드가 끼어 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벌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걷은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칠히까치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깨 나는 속이 무명 형겅이나 메밀껍질로 땀땀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뿐이고 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 으악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

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느니 보다는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 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중략>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으로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어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박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A]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

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흥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까답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논리)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辨解)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①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건넌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날개」

1.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나’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자 한다.
- ② 무기력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삶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 ③ 내면의 고독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하려 한다.
- ④ 흑색 옷과 침침한 방에 갇힌 생활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나’의 고립된 내면을 드러낸다.
- ⑤ 빈대에 대한 강한 혐오감은 곤궁한 현실에 만족하며 내면의 쾌락에 안주하려는 심리를 반영한다.

2. 윗글에 사용된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색채 대비를 통해 인물의 긍정적, 부정적 속성을 뚜렷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방’이라는 특정 공간의 음울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견지하며 냉소적인 어조로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⑤ 점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점차 고조되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작품의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3. 윗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에서 적절하게 고른 것은?

<보기>

ㄱ.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식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ㄴ.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ㄷ.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ㄹ.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다.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는 것이다.

- ① ‘나’의 의식 상태는 ㉠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겠군.
 ②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이겠군.
 ④ ‘나’는 ‘정오’가 되면서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는군.
 ⑤ 이 작품은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겠군.

5. 일제 강점기에 미쓰꼬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에서 ‘미쓰꼬시 옥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로 하여금 내면적 성찰을 시도하게 한다.
 ② ‘나’에게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③ ‘회택의 거리’를 압축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한다.
 ④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 준다.
 ⑤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6.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들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도적질하거나 계집질한다고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적인 힘을 의미한다.
 ②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를 의미한다.
 ③ ‘나’가 ‘아내’에게서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④ 자신도 모르게 아달린을 먹어 왔는지도 모른다는 ‘나’의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한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의미한다.

【7~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건만 나에게서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옷을 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이넥의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내 내의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를 뒀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 밴드가 끼어 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어느덧 손수건만 해졌던 벌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에도 좀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걷은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치까치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도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형겅이나 메밀겅질로 멍멍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뿐이고 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는니 보다는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

격으로 일을 해 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 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중략>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으로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어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박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팠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흥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듯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속으로 섞여 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 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논리)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辨解)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뛰— 하고 **㉢**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리(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건넌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이렇게 외쳐 보고 싶었다.

㉡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날개」

7. ㉡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정한 내면적 자아의 회복과 자유에 대한 열망
- ② 잊고 있었던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 ③ 가난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도피하려는 인물의 내면
- ④ 타인과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부조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
- ⑤ 바깥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나 외출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 계기

8.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은 옷’은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나’의 처지를 암시한다.
- ② ‘침침한 방’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무기력한 ‘나’의 내면을 투영한다.
- ③ ‘정오 사이렌’은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갈망을 심화한다.
- ④ ‘미쓰꼬시 옥상’에서 금붕어를 바라보는 행위는 ‘나’의 내면 성찰을 위한 계기가 된다.
- ⑤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지는’ 환상은 ‘나’의 자아 회복에 대한 의지를 꺾는다.

9. 윗글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없고’는 허무감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②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는 활기찬 생명력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 ③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는 아내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의지를 부각한다.
- ④ ‘무명 형겅이나 메밀껍질로 땡땡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은 예민함을 강조한다.
- 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는 역동적인 시대상을 효과적으로 묘사한다.

10. 윗글에 드러난 ‘나’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 ② 무의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내비친다.
- ③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려 노력한다.
- ④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 ⑤ 현재의 무기력한 상황을 체념하면서도 내면의 안정을 추구하려 한다.

1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묘사를 통해 냉소적인 현실을 고발한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본질을 탐구한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서술하여 사건의 입체성을 확보한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 ⑤ 외부 세계와의 갈등을 심화하여 주인공의 고뇌를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12. ㉠에 담긴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와의 화해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 ② 아내와의 관계에서 겪는 근원적인 소통 부재와 단절감에 대한 자각
- ③ 아내에게 의존적인 자신의 무능력한 처지를 자조적으로 드러내는 인식
- ④ 아내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 ⑤ 아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며 갈등을 회피하려는 태도

13.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무기력한 일상을 환기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② '나'의 내면 갈등을 심화시켜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강조한다.
- ③ '나'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촉진하여 자아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다.
- ④ '나'의 억압된 의식을 일깨워 현실 극복의 의지를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 ⑤ '나'와 아내의 단절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어 비극성을 고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14. 윗글에서 '나의 방'과 대조적인 공간들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성역 홀'은 단절된 '나'가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② '미쓰꼬시 옥상'은 '나'가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는 도피처이다.
- ③ '아내의 방'은 '나'가 갈망하는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삶을 암시하는 동시에 소외감을 심화하는 공간이다.
- ④ '회택의 거리'는 '나'가 속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공간이다.
- ⑤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는 '나'가 사회의 역동성에 편승하여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현대 사회의 익명성과 개인의 고립은 인간 소외를 심화시킨다.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전통적 가치의 붕괴는 개인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은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무력감과 소외감에 휩싸이기 쉽다.

- ① '아내'와의 단절된 관계는 현대 사회의 소통 부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의 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은 고립된 개인의 내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미쓰꼬시 옥상'에서 금붕어를 바라보는 행위는 인간 소외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④ '회택의 거리'에서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 헤어지지 못하는 모습은 현대인의 무력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⑤ '날개'를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갈망하는 '나'의 모습은 소외된 개인이 느끼는 절망감과 희망의 양면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흑색으로 표상되는 어두운 옷과 햇볕이 들지 않는 칙칙한 방의 이미지는 외부와 단절된 채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나'의 내면 상태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①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꾸지람을 회피하는 '나'의 모습은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기보다는 아내에게 종속적인 현재 상황에 안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이불 속 몽상이나 과거 회상 등 피상적인 행동만 반복할 뿐, '무기력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능동적 '노력'이나 뚜렷한 '의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인간 사회를 '스스러워'하고 아내 외의 인간관계를 꺼리는 '나'의 태도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⑤ 빈대는 그저 '나'가 불쾌하게 여기는 대상일 뿐, 빈대에 대한 혐오 반응을 억압된 현실에 '만족'하며 '내면의 쾌락'을 추구하려는 심리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2. [정답] ②

'침침하다', '서늘하다', '아늑하다' 등 다채로운 감각적 심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음울하고 축축한 분위기를 시각적, 촉각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① 흑백 대비는 나타나지만, 아내의 화려함과 '나'의 초라함을 긍정적, 부정적 '속성'으로 단정하여 '뚜렷하게 부각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③ '나'의 주관적인 내면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객관적 어조로 현실을 '비판'하기보다는 무력한 자아를 자조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④ '경성역', '미쓰꼬시' 등의 어휘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할 뿐, 역사적 사건 자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만, 정서의 점진적 심화를 통해 '고조되는 갈등' 양

상을 뚜렷하게 제시한다고 분석하기는 다소 어렵다.

3. [정답] ②

ㄱ. 이 소설은 객관적인 진술보다는 서술자인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며, 독백적 어조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서술자의 내면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나'가 지닌 자의식의 혼란과 자아 분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ㄴ.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느 허비적거렸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ㄷ.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ㄹ. 회상의 기법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정답] ④

㉠은 주인공의 의식의 전환을 보여줄 뿐,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이 작품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나타나는 '나'의 심리 변화에 주목해 볼 때, ㉠ 이후로 '나'의 심리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 이후 '나'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가 담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를 참조할 때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5. [정답] ②

② 미쓰코시 옥상이 나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인공인 서술자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는 '미쓰코시 옥상'이 아니라 '정오의 사이렌'이다.

① 옥상에 올라와서 '나'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면적 성찰을 한다.

③ 이 작품의 배경인 일제 강점기의 서울에서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은 매우 높은 곳이었기에 건물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다.

④ '나'는 미쓰코시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조망하면서 '나'와 '회택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낸다.

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택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옥상에서 바라본 '회택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정답] ②

이 작품에서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폐쇄적이고 무기력한 삶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몸부림일 뿐이므로, 이를 현대 문명의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아내'가 현대 문명을, '나'가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상징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에서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을, 지식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이 작품에서 '나'는 '아내'를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보기>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아내'가 현대 문명을 상징한다고 볼 때, '아내'가 '나'에게 아달린을 먹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은 자기의 이성이 자신도 모르게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가는 데 대한 지식인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사라졌던 '나'의 희망과 야심이 다시 살아남을 표현한 구절이므로, 현대 문명

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 [정답] ①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날개'는 자유와 이상을 의미한다. 이 소설에서도 날개가 다시 돋기를 바라는 것은 삶의 의미와 자아를 찾아 자유롭게 이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내면적 자아의 회복과 이상 추구, 자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주인공의 의식과 행동이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도 찾기 어렵다.

③ '자유에 대한 열망, 이상의 추구'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가난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도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④ 타인과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거나 부조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바깥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주인공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외출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정답] ⑤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지는' 환상은 억압적인 아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내면적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오히려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타당하다.

① '검은 옷'은 아내가 '나'에게 옷을 주지 않는 상황과 대비되어, 경제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하며 통제받는 '나'의 종속적인 위치를 효과적으로 암시한다.

② '침침한 방'은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공간으로,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고 방에 윤택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오 사이렌'은 무의미한 일상에 갇혀 있던 '나'에게 새로운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서,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갈망하도록 '나'를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미쓰코시 옥상'에서 금붕어를 멍하니 바라보는 행위는 활기 있는 금붕어의 모습과 대비되는 무기

력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잃어버린 자아를 되돌아보는 내면 성찰의 단초를 제공한다.

9. [정답] ①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없고’는 주인공이 이불 속에서 했던 다양한 생각과 창작물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허망하게 사라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무상함과 허무감을 효과적으로 심화한다.

②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는 활기찬 생명력이 아니라, 오히려 힘겹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곤한 일상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해야 맥락에 부합한다.

③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는 환상은 아내와의 관계 회복이 아닌, 억압적인 아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주인공의 강렬한 욕망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무명 형겅이나 메밀겅질로 땡땡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은 오히려 텅 비어 있고 무감각해진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는 긍정적인 시대상이 아니라, 정오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의 혼란스럽고 역동적인 도시 풍경을 과장하여 묘사함으로써 현란한 도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0. [정답] ⑤

‘나’는 아내에게 종속된 무기력한 삶과 반대조차 펼쳐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을 자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며, 침침한 방에서 낮잠을 자거나 몽상에 잠기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내면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①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숙명적으로 받아 맞지 않는 절름발이’라고 표현하며 갈등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일 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날개’를 갈망하는 모습에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은 엿보이나, 현실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나 행동은 부재하며 오히려 무기력한 태도가 두드러진다.

③ ‘나’는 인간 사회를 ‘스스러웠다’, ‘서먹서먹할 뿐이었다’고 인식하며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고 있을 뿐,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나’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며, 오히려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현실 인식이 두드러진다.

11. [정답] ④

윗글은 ‘나’의 의식이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서술되어 있으며, 독백과 내면 묘사를 통해 무기력하고 고립된 주인공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윗글은 객관적인 묘사보다는 주관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현실 고발보다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 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윗글에도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기는 했으나, 대상의 본질 탐구보다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 묘사에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③ 윗글은 시간 순서에 따라 ‘나’의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며 서술되어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윗글은 외부 세계와의 갈등보다는 주인공 내면의 고독과 절망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고뇌의 심층적인 조명은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정답] ②

㉞는 ‘나’와 아내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엇나가는 관계임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으로, 관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단절된 상태에 대한 절망적인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① ㉞는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불화를 체념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③ ㉞는 자조적인 태도를 내포하기는 하지만, 무능력한 자신의 처지보다는 아내와의 관계 자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㉞는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보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㉞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부부 관계 자체의 속

명적인 불화를 의미하며, 갈등 회피보다는 체념적인 수용에 가까운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3. [정답] ④

⑥는 획일적인 시간, 억압적인 사회 질서를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각성의 순간을 제공하여,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의지를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⑥는 일시적으로 '나'의 의식을 각성시키지만,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의 억압적인 힘을 환기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② ⑥는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심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하며 탈출구를 모색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③ ⑥는 '나'의 과거 회상보다는 현재의 각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향하는 매개체이며, 자아 성찰보다는 현실 극복 의지를 고취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⑤ ⑥는 '나'와 아내의 관계보다는 '나' 개인의 내면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부 관계를 비극성을 고조하는 기능보다는 '나'의 각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기능이 더 두드러진다.

14. [정답] ③

'나의 방'이 침침하고 녹녹한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내의 방'은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아내'의 화려한 옷차림과 외출 등의 행적을 통해 풍요롭고 활력 있는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기력한 '나'에게 소외감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① '경성역 홀'은 잠시 머무르는 공간일 뿐,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려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돈이 없는 현실을 자각하고 좌절하는 공간에 가깝다.

② '미쓰꼬시 옥상'은 일시적으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금붕어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공간일 뿐, 적극적인 자유를 느끼거나 현실에서 벗어나는 도피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회택의 거리'는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을 반영하나, '나'가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무기력하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⑤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는 역동적인 사회의 모습은 보여주나, '나'가 그 역동성에 편승하여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동차에 치일 뻔하는 상황은 '나'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처지를 강조한다.

15. [정답] ③

'미쓰꼬시 옥상'에서 금붕어를 바라보는 행위는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고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인간 소외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감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① '아내'와의 소통 부재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과 개인의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 소외의 한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방'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으로, <보기>에서 언급된 고립된 개인이 겪는 내면의 단절과 고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④ '회택의 거리'에서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 헤어나지 못하는 군상들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개인들의 소외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날개'는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은 없는' 날개라는 점에서 좌절감을 드러내어, 인간 소외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절망과 희망의 공존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